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단순 다수제'로 권고

9~10일, 1박2일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진행
 10일 오후 3시께 설문조사 한 후, 5시께 결과 발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 250명이 종합토론회 때 건설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단순 다수제로 권고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최영태, 이하 '공론화위

원회')는 7일 오전 9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단순 다수제 원칙을 준수해 권고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11월 9일(금)~10일(토), 1박 2일로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 한 후, 둘째날인 10일 오후 3시 10분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과 찬반 이유를 묻는다.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의견 분포는 둘째날인 10일 오후 4시 45분경 확인된다. 더불어 도시철

도 2호선 공론화 진행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찬반 양측의 조합발언 △쟁점토론1(경제성), 쟁점토론2(광주교통체계)와 질의·응답 △찬반 양측의 보충·상호토의를 비롯해 최종발언 발표자와 답변자 명단, 그리고 발표순서와 진행방식 등을 확정했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250명이 집중적으로 속의·토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종합토론회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기에 민주도시 광주답게 이해 관계자를 비롯해 광주 시민 모두가 광주정신으로 공론화 결과의 광주다운 수용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시, 국내외 15개 기업과 투자협약

외국기업 합작투자 등... 755억원 투자협약 체결

에너지밸리·평동3차산단 등에 에너지, 의료기기 등 투자

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큐솔라㈜, ㈜지오메디칼, 대한공조㈜ 등 국내외 15개 기업과 투자금액 755억원, 신규 고용 360여 명을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국내기업과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외국기업 3개사를 포함해 경기(2개), 충남(1개), 충북(1개), 전남(2개) 등 관외기업 9개 업체, 광주지역 6개 업체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 유형은 ▲'에너지 분야' 큐솔라, 호남대학교, 국제전기, ㈜태신아이앤시 등 6개사 348억원 ▲'의료기기 분야' ㈜지오메디칼, ㈜바이원, ㈜김즈메드 등 5개사 135억원 ▲'전기차용 배터리분야' ㈜씨아이에스 100억원 ▲'전자부품 제조분야' 대한공조 92억원 ▲'철구조물 제조분야' (유)케이테크코리아 등 2개사 80억원 등이다. 투자 지역은 에너지밸리 산단과 평동3차산단, 진곡산단으로, 공장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및 ESS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큐솔라가 100억원, 신학연관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호남대학교가 80억원, 변압기·UPS 및 철도차량변압기 등 전기자재를 생산하는 국제전기가 50억원, 태양광 LED가로 등 및 일반 가로등과 ESS에너지 절감 장치 제품을 제조하는 ㈜삼호엔스티가 48억원, 태양광 시공업체 ㈜태양이앤씨가 20억원을 각각 투자해 공장을 신축한다.

평동 산업단지에는 대한공조가 92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 및 설비투자를 통해 냉·난방 시스템의 핵심인 열교환기를 생산하고, 나주 소재 기업인 ㈜태신아이앤시는 50억원을 들여 슬러지 및 생활쓰레기 중가연성 쓰레기만 분리해 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

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기업과 협약을 통해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유)케이테크코리아도 80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 및 미용 콘택트렌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메디칼이 생산 확대를 위해 100억원 투자하며, 첨단 의료기기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이탈리아 기업과 ㈜김즈메드가 15억원을, 의료용품 제조·판매하는 콜롬비아 기업과 ㈜바이원이 20억원을 합작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지역의 외국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신규법인 설립 및 증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순도 나노알루미나를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씨아이에스는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분야 생산 확대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해 진곡산단에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다.

광주지역의 민선7기 투자협약 목표를 170개사(국내 148, 외국 22)로 세우고, 30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과 연계한 국내 우량기업 중점 유치 및 타깃기업 발굴 등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활동 중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광주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참여자치21 "광주 2순환도로 '뒷돈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관련자들이 역대의 뒷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8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제2순환도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비리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 징수 업체로 선정 받기 위해 광주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하청업체 실소유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58)씨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여자치21은 "그동안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무면허 업자에게 시설 관리를 맡긴 점과 상납구조 형성, 맥쿼리가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은 의혹이 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6년 진행된 1구간 재협상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연합뉴스



"메주 만들기 재밌어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8일 전통된장마을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 백정재(식품명인 제65호)씨 고택 마루에서 장성 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이 메주 만들기 체험에 푹 빠져 있다. /연합뉴스

'공소시효 한달 전' 광주·전남 단체장 3분의 1 검찰 조사 중

전체 단체장 29명... 11명 검찰 조사, 2명 재판 중

6·13 지방선거 사법 공소시효를 한달여 앞두고 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3분의 1 이상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 여부 및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단체장은 전남 교육감을 포함해 10명이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단체장은 1명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유두석 장성군수·강인규 나주시장·구충근 화순군수·허석순천시장·권오봉 여수시장·정현복광양시장·김종식 목포시장·이승욱 강진군수·송귀근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도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기사제보 227-0000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